

동네방네

상주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시행

상주시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처음이다. 이는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

접 계약을 체결하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 총 18가지 항목을 보장하며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김홍기 기자



인플루언서들이 SNS발대식을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지역알리는 SNS 홍보단 10명 위촉

전남 해남군이 SNS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SNS에서 영향력이 큰 유명인을 활용한 군정 마케팅에 나섰다

고 3일 밝혔다. 홍보단은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

하고 있는 10명의 인플루언서로 구성돼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2020 해남방문의 해' 등 군정 역점 추진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1일 방문자 3000명 이상의 SNS 인플루언서를 선정했으며 해남관광지와 축제 등을 기획취재 할 계획이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안성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에는 4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다난방, 취사시설, 화장실구비필요)이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공사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95%(8550만원 한도), 입주자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450만원)이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경북도,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100억 투입 천만 관광객 모신다

2023년까지 외국인 15만명 유치 상품개발, 기반 확충, 홍보 확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강화

경북도가 2023년까지 농촌관광객 1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15만명 유치를 목표로 '365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65'는 3촌(농촌, 산촌, 어촌), 6라(체험, 힐링, 경관, 전통, 탐구, 축제), 5감(보고, 먹고, 느끼고, 쉬고, 즐기고)을 이른다.

경북도는 3일 SNS 등 모바일을 통한 여행 정보의 증가, 개별 자유여행과 체험중심의 관광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급변하는 농촌관광 시장을 선점하고자 '365일 경북에서 놀자'라는 표어로 농촌관광 중장기 계획인 '365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 ▲기반 확충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4대전략을 마련하고 16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대구 경북 관광의 해'로 22개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해 공격적인 농촌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먼저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경북농업·농촌의 특색, 자연경관, 전통문화유산, 향토음식 등을 활용해 연중관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경산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구체적으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6차산업화 프로그램 운영에 19억원, 특산농식품을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을축제에 3억원을 지원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활성화 기반 및 무선인터넷 설비 구축에 16억원을 지원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 체험마을 리더 교육 및 사무장 채용에 14억원을 지원해 농촌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및 일산화탄소·가스누설 경보기 등 안전장비 설치에 2억원을 지원해 쾌적한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 농촌관광 시설은 휴양마을 128, 농어촌민박 2673, 휴양단지 5, 관광농원 64곳 등 모두 2870곳이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도

단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발족해 관광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2억원을 지원한다.

또 6차산업 및 향토산업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5억원을 투입해 생산·가공·체험·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농촌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농촌관광 온라인 상품운영 지원에 2억원, 농특산물 홍보·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체험·전시 34억원을 지원한다. 또 경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문쇼핑몰인 '사이소'를 새롭게 개편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농촌 체험 상품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마케팅도 적극 추진한다. /경북=김홍기 기자 gj2136@metroseoul.co.kr

광주·전남, 中 상하이 통상사무소 임시 휴업

파견 공무원, 업무 복귀 앞두고 대기중 9일까지 휴업 후 상황에 따라 연장 5월 예정인 中 우호 교류 행사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에 따라 광주·전남도가 중국 상하이에 개설한 통상사무소를 한시적으로 폐쇄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가 오는 9일까지 공공기관의 출근을 금지함에 따라 시·도 통상사무소도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광주시 사무소 파견 공무원 1명은

중국 춘절연휴 기간에 입국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현재 국내에서 머물고 있으며 현지인 직원 2명도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전남도 통상사무소에 파견된 5급 사무관급 사무소장 등 6명도 철수했다. 현재 상하이 사무소장은 귀국해 가택 격리 중이며 중국 현지인 직원 5명도 자가에서 머물고 있다.

또 중국 저장성에 교류차 파견한 전남도 6급 직원 역시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중국 측에서 파견한 직원 역시 지난

달 29일 입국했지만, 전남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9일까지 휴업 조치를 한 뒤 중국 상황에 따라 휴업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오는 5월 예정인 저장성, 산시성과의 우호 교류행사도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다.

광주시는 아직까지 중국 방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 사무소들과 교류하며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2월 4일 (화) 음력 : 1월 11일

해돋이 / 07:34 | 해질 / 17:58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0/4, 동두천 -8/4, 가평 -9/3, 파주 -10/4, 서울 -5/5, 양평 -8/5, 인천 -4/5, 수원 -4/5, 용인 -4/5, 평택 -8/5, 백령도 0/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김동연 전 부총리, 장성아카데미서 강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장성아카데미 강단에 선다.

3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4시 장성평생교육센터에서 열리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김 전 부총리를 강사로 초빙했다.

김 전 부총리는 두 달여 미국 미시간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말 귀국했다. 강연 주제인 '유쾌한 반란'은 김 전 부총리가 귀국



하고 설립한 비영리 법인 이름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은 사회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공유·연대 사업을 개발한다고 알려졌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를 기치로 1995년 9월 15일 첫 강좌를 열었다. /전남=김태수 기자

광주 북구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광주시 북구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3일 북구에 따르면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북구는 지난해 예산액 8043억원 중 7437억원을 집행해 9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광주=김태수 기자